

“청사서 테러라니...” 검찰 당혹

광주지검 부장검사 민원인에 피습

“언제 또 터질 지 모르는 일” 보안 대책 서둘러 강화해야

현지 부장검사가 검찰청사 내 사무실에서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에게 철제 공구로 무차별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검찰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1월 서울고법 부장판사 석궁 테러 이후 수사기관인 검찰 간부에 대한 흉기 피습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법조계의 충격은 더욱 컸다.

광주·지검 관계자들은 “과거 민원인 등에 의해 검사 및 수사관들이 위협받은 적은 있었지만, 부장검사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흉기로 폭행당한 것은 초유의 일”이라며 충격을 감추지 않았다.

실에서 인질극을 벌인 전례도 있었다. 당시 인질극을 벌였던 피의자는 경찰과 수 시간 동안 대치하다 사과탄을 터뜨리고 진압에 나선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따라서 이날 터진 부장검사 피습사건은 또 한 번의 검찰 ‘수난사’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법원은 석궁 테러 이후 급속물 탐지대를 통해 무기류 등의 반입을 막고, 관사실 이동 통로에 보안카드를 사용해 출입이 가능한 슬라이드 도어를 설치하는 등 청사 보안을 철저히 하고 있다. 또한, 수시로 법정 난동 등에 대비한 모의훈련까지 하는 등 관사 테러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 내부에서는 “석궁 테러 이후 청사 보안을 강화한 법원처럼 검찰도 청사 방호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16일 광주지검 청사 특수부장실에서 이모 부장검사를 폭행한 범인 한씨가 철제 공구를 소지한 채 청사 안을 돌아다니고, 사무실과 복도에서 무차별 폭행했지만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도 청사 정문에 급속물 탐지대가 설치돼 있던 하지만, 대부분 사용을 하지 않고 다른 출입문도 많아 사실상 무용지물인 셈이다.

광주지검에서는 지난 1998년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던 강도 피의자가 자신을 변호 온 애인을 인질로 잡고 검사

검찰도 이에 따라 법원의 보안 대책을 적극적으로 참고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임채진 검찰총장은 이날 광주지검 부장검사 폭행사건과 관련, 전국 검찰청에 보안 관리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광주지검 한명관 차장검사는 “외국에서는 소지품을 일일이 검사하는 등 엄격하게 출입을 제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민원인의 반감을 살수 있다는 점에서 자제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일을 계기로 검사가 위해를 당하는 상황이 없도록 청사 방호에 특별히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16일 오전 광주지검 청사내 사무실에서 사건처리에 불만을 품은 40대에게 폭행당한 광주지검 이모 부장검사가 조산대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뒤 병실로 옮겨지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사건 당시 여성 실무관 1명 뿐 최근 2차례 면담으로 출입 수월

왜 쉽게 당했나

현지 부장검사가 자신의 집무실에서 민원인에게 힘이 닿았던 이유는 뭘까.

민원인이 검사실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민원실에서 면담 신청서를 작성하고,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검사와 관사 등 22명을 상대로 고소 또는 진정을 제기하는 등 광주법원과 검찰 내부에서 ‘악성 민원인’으로 이미 알려진 한씨가 손쉽게 검찰 청사를 방문할 수 있었던 것은 한씨가 고검에 제기한 항고사건 때문이었다.

한씨는 이날 광주·지검 청사 1층에 민원실에서 광주·지검 관계자 면담신청서를 제출하고 청사에 들어갔다.

한씨는 최근 자신이 검사 5명을 직무유기로 고소했다가 지검에서 각하당하자 다시 고검에 항고했으며 이와 관련, 16일 고검 관계자 면담을 이유로 출입증을 발급받았다.

이 때문에 한씨는 고검과 같은 층인 7층 이 부장검사실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특히 최근 면담 신청서를 작성해 2차례에 걸쳐 이 부장검사와 면담한 적이 있어 비교적 수월하게 이 부장검사를 찾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최근 특수부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동안 부장검사에 근무하고 있던 수사관들을 평검사실로 배치함에 따라 사건 당시 부장검사실에는 이 부장검사와 여성 실무관 1명만 있는 상황 이어서 한씨의 폭행을 제지하지 못했다. /최권일기자 cki@

나원침 (7680) 김장두



‘식당 주인 피살’ 용의자 공개 수배

광주동부경찰

60대 식당주인 피살사건을 수사중인 광주동부경찰은 사건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신원미상의 60대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공개수배에 나섰다.

광주동부경찰은 지난 10월20일 오전 광주시 동구 대인동 H식당에서 잠을 자고 있던 최모(66)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키 170cm가량인 백발의 한 신원미상 60대 남성을 수배하고, 공개수사로 전환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남성이 평소 자주 다니던 인근 은행 CCTV(폐쇄

회)에서 얼굴사진을 입수해, 수배 전단 4천장을 제작·배포하고, 전국 경찰관서에 배포할 예정이다.

경찰 조사결과 치악 방문판매사인 이 남성이 사건이 발생한 건물 3층 T여인숙에서 6년간 거주했으며, 사건 당일 치악 남품처로부터 ‘경찰이 찾는다’는 말을 전해 듣고 잠적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이웃들에게 인적사항을 숨긴 점과, 평소 자주 드나들던 H식당에서 사건 발생 2주 전 접견 최씨와 다른 점, 등으로 미루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제보전화 광주동부경찰서 형사과 062-224-0112 또는 국번 없이 112.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다 좋은 건데...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제작 및 상담반영

▶ 서울본사 : 02) 3445-0943
▶ 나주공장 : 061) 337-0571

10대가 반찬가게 텀 끼었다

상나팔

○“어머니가 임원종인 탓에 변변한 반찬을 먹지 못하던 10대가 선·후배들과 함께 상습적으로 반찬가게를 텀다 결국 경찰서행.

○“광주광산경찰은 16일 동네 반찬가게에 들어가 반찬을 훔친 혐의로 B(18·광주시 광산구)군과 B군의 선·후배 등 4명을 붙잡아 조사중.

○“경찰에 따르면 B군 등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시 광산구 K씨가 운영하는 반찬가게에 잠입해 15차례에 걸쳐 150만원 상당의 반찬을 훔친 혐의라는 것.

○“B군은 경찰에서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있어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며 “밥과 함께 먹을 반찬을 찾다가 잠금장치가 허술한 반찬가게를 텀게 됐다”고 선처를 호소.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한씨는 누구

16일 광주지검 이모 부장검사 흉기 피습 사건의 범인인 한모(47)씨와 검찰간의 약연은 지난 2005년 11월 자신이 도급받은 아파트 실내장식 공사과 관련, 이 공사를 맡긴 한 대학교수와 분쟁이 불어면서 시작했다.

한씨는 공사기간을 맞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사를 중단당한 뒤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자 계약자인 대학교수 A씨를 두 차례에 걸쳐 모욕했다가 고소당했다.

한씨는 모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A씨와 그 일행을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등 고소전을

실내장식 공사 관련 3년간 소송 관·검사 고발했다 무고죄 처벌도

펼쳤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 법원은 모두 A씨의 손을 들어줬고, 한씨는 이로 인해 지난해 9월 벌금 700만원에 상고확정 판결을 받았다.

법원의 확정판결로 더 기댈 데가 없어진 한씨는 이 대학교수와 재판에 출석한 증인은 물론, 당시 사건을 맡았던 경찰관 1명과 검사 11명, 판사 1명을 위증 및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2월 한씨를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한씨는 재판을 통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한씨는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관련 공무원 등을 처벌해 달라’며 5차례에 걸쳐 진정을 제기했으나 모두 ‘공람종결’(내부 검토 뒤 사건 종결) 처분됐다.

또한, 자신을 무고죄로 구속 기소한 검사 등 5명의 검사를 직무유기로 추가로 고소했다가 기각되자 고검검

찰에 항고했다.

한씨는 이 과정에서 “왜 증거가 충분한 데 공람종결 처분하느냐”라며 수 차례에 걸쳐 검찰 민원실과 부장검사실, 차장실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검찰 수사에 반발해 왔다.

하지만, 이날 한씨에게 피습을 당한 이 모 부장검사는 2차례에 한씨를 걸터 면담하고 1~2시간여에 걸쳐 충만한 경위와 처분 결과를 설명해주는 등 민원인의 궁극적 해소와 억울한 점이 없도록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는 3년여간 끌어온 소송을 결국 ‘공람종결’한 부서의 책임자인 이 부장검사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며 중지부를 찍었다. /최권일기자 cki@

리첸 리첸리첸 광주직영전시장 OPEN

리첸리첸리첸 리첸리첸리첸 리첸리첸리첸

062-267-7753

보양음료 속취해소

아직도, 힘들게 보약을 맡여 드십니까?

062-267-7753

011-9612-8700